기독교는 실패했는가?

기독교는 실패했는가?

기독교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한 올바른 답변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독교가 이루기를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달려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제시하며, 논리적인 결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분께로 돌아서게 하여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려 계획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지 거의 이천 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회개하기에는 한참 멀었다. 기독교는 전반적으로 급속히 세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온 나라가 온갖 종교들에 맞서고 있다.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판단해야 하는가?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구약의 예언에 근거하여 메시아 왕국에 대한 희망을 품었기에, 그들의 기대는

대부분 올바르고 정확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때가 그 왕국을 세울 때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부분의 자칭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세상이 회심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그들의 믿음은 옳지만, 그들은 성경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대가 지금이 아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언들로부터 메시아가 세상에 약속된 왕국의 복이 임하기 전에 인간의 구속자로서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자칭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으로부터 참 그리스도의 교회가 미래에 세상의 인류를 개종시키고 복을 주시는 왕국 사역에 그분과 함께 참여하는 특권을 얻기 전에 그분과 함께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분명히 밝히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임이라. 나는 이 세상의 고난이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여기노라." 로마서 8:17,18

여기서 언급된 영광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가리킵니다. 이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먼저 그분과 함께 고난을 겪어야 한다면, 이는 교회의 현재 사명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그분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르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릅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바이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여러 차례 “누구든지 나를 제자로 삼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이들이 죽음까지 그분을 따라야 함은 요한계시록 2:10의 예수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러한 신실함이 박해의 고통 앞에서도 인내를 의미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3:21의 약속에서 드러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아 내와 같이 다스리게 하리니 이는 나도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앉아 그와 함께 다스림을 받았음이라."

교회에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신성한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 목적은 분명히 제자를 삼고 증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증거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장차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인용합니다: "나는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는데, …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살며 다스렸다."

세상 속 참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단지 진리 에 대한 증언을 하고, 그로 인해 얻은 경험을 통해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세상을 개종시키는 위대한 미래 사역을 준비하는 데 있었다면, 기독교의 겉보기 실패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참된 기독교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많은 자칭 신자들의 거짓된 소망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봅니다. 교회의 현재 사명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고난의 사명임을 깨달을 때, 많은 난해한 질문들이 즉시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종종 궁금해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후 인류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암흑기라고 부르는 긴 어둠의 시대로 빠져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오늘날 세상에 백 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불신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종류의 질문들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많은 이들은 이런 의문 끝에 기독교가 거대한 사기극이며,

문명의 기초이자 버팀목이라 여겨졌던 이 종교가 그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기독교 관념은 클럽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며, 이는 신의 진노로부터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여,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한 개인을 끔찍한 고통의 장소로 보내버릴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끔찍한 운명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가정되어 왔다. 이제 더 나은 시대의 밝은 빛 속에서 영원한 고통의 악몽이 성경에 가르쳐지지 않음이 밝혀짐에 따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의 길이 열리고 있다.

그리스도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메시아 의 그리스어 번역으로, 신약성경에서 예수를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적

약속들과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약속들 중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더 구체적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졌을 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축복하실 약속의 씨로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성경은 그분의 죽음에 이르는 자기 희생의 발자취( )를 충실히 따름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들이 약속된 씨의 일부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갈라디아서 3:29)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이 두 진술을 통해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양육 과정에서 하나님이 단지 모든 민족을 축복하려는 미래의 메시아적 목적과 연관된 예비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은 전 인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 민족 가운데서 소수를 선택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포함한 온 세상을 축복하실 미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다.

특별한 백성

오늘날 하나님께서 메시아와 함께 다스리도록 택하신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느 교회에서 그들을 찾을 수 있는가? 그들이 누구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인정하며 회개한 자이며,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해 자신의 시간과 재능,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그 헌신을 성실히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입니다( ). 교파적 교회 소속 여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이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계시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먼저 이방인들을 찾아오셨다"고 설명하지만, 그들을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취하시려 하셨다고 합니다. 사도는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는 일이 완성되어야 합니다—모든 온전히 헌신한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사도행전 15:14-18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온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심을 깨달을 때, 지금까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성경 구절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5:10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미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외의 모든 사람이 땅에서 제거되어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면, 어떻게 이것이 사실일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땅( )에서 누구를 다스릴 것인가? 참 교회의 완성을 뒤따르는 세상은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을 것임을 성경에서 깨달을 때, 이 어려움은 사라진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은 교회와 세상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지만, 신적 섭리에 대한 개인의 협력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성경은 진리를 완전히 알게 된 후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벌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그러나 암흑기 신조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의 영원한 보존이 아니라.

참 교회의 상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메시아 왕국에 참여할 기독교 교회를 선택하신 것과 관련하여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반보다 더 높은 상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마련하신 것은 그들이 땅 위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 즉 창세 전부터 준비된 왕국, 즉 이 땅의 하등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으로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14:2,3)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2,3) 교회는 하늘의 상을 받게 되지만, 이 논의 후반부에서 보게 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 그분의 뜻은 아닙니다.

구세주의 흘리신 피를 통한 영생의 전망은 성경이 교회와 세상 모두에게 제시하는 복된 소망이다.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의인을 위한 천국과 악인을 위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선택이다.

첫 사람 아담은 불순종하여 생명을 잃었으나, 결국 예수께서 인간의 랜섬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형벌을 치르셨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다시 한 번 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는 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겠지만, 복음 시대 동안에는 온전히 헌신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구속주의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혜택을 누릴 기회를 실제로 갖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자기 생명을 희생적으로 내어놓음으로, 생명 그 자체뿐 아니라 불멸의 생명으로 보상받습니다. 이들은 바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17, 2:7; ;) 미래 왕국 시대에 인류 세계의 순종하는 자들도 살 기회를 얻겠지만, 그들이 받는 생명은 아담이 상실한 회복된 인간 생명일 것이다. 순종하는

자들은 그때 영원히 살게 되리니( ), 그들이 불멸의 존재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때문이다.

세상이 회심하지 않는 이유

진정한 기독교의 사역은 지금까지 오직 메시아와 함께 미래의 공동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그 오랜 약속의 왕국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는 일에 불과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기독교 시대 내내 세상을 개종시키려는 시도가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도 당연하다. 창조주께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기독교가 실패로 보일 것임을 아셨다. 예수님 자신도 이 시대의 끝을 언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찾으리요?"(누가복음 18:8) 따라서 오늘날 세상에서 성경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세상의 구속자이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이 상황을

예견하시고 예언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할 또 하나의 좋은 이유이다.

소위 기독교 교회들 사이의 수백 가지 분열 역시 예언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었다. 바울은 참된 믿음으로부터 큰 배도가 올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확실히 일어났다.

만일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 세계 인류에게 호의를 얻기 위한 사악한 목적을 품고 어떤 이기적인 계획을 추진하려는 속임수를 쓰는 집단이었다면, 그들이 고의로 자신들의 전체 계획이 오래지 않아 실패하고 자신들이 수백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을까? 그런 비관적인 예언은 초기 신자들에게 별로 격려가 되지 않았을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 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세상적인 지혜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미래를 가능한 한 밝게 그려내지 않으면, 결코 많은 개종자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세속적 지혜에 이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크고 위엄 있는 교회 조직을 세우는 데 있지 않음을 완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의 축복 사역을 위해 모이고 준비될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잘못 인도된 남녀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영광스러운 진리를 왜곡할 것이며, 그 결과 기독교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것임을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가 실패하지 않았으며, 이 시대를 위한 신성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새 왕국을 위한 이 예비 작업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실제로, 신성한 목적 안에서 예수와 함께 메시아 왕국에서 통치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준비시키기 위해 정해진 기간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적 증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끝과 새 시대의 시작, 즉 죽어가는 세상에 예언된 평화와 생명의 축복이 베풀어질 시대에 거의 다다랐음을 나타내는 몇 가지 증거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 회복

전 세계적인 에덴 동산 같은 고향에서 인류가 완전한 건강과 행복, 영생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창조주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명백한 목적이다. 이성이 우리에게 말하건대, 이는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이 지구를 인간을 위해, 인간을 지구를 위해 창조하셨다면, 그분의 사랑스러운 계획을 영원히 방해하는 기만과 반역의 세력을 허용하시거나, 소수의 인간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다른 삶의 상태로 옮기는 대안적 방안을 강요당하실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놀라운 에덴 동산이라는 집을 마련해 주셨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창조주의 법칙에 순종하는 한 죽음은 그들에게 다가올 일이 아니었습니다 .

그들은 땅에서 살며 죽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자손으로 하늘이 아닌 땅을 채울 것이었다. 그러니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원래의 에덴 낙원이 온 땅을 포용하도록 확장되었다면 이 지구에 어떤 영광스럽고 이상적인 조건이 주어졌을지 상상해 보라. 전 세계적인 낙원이 온전하고 행복한 인류 가족으로 가득 차, 모두가 영생과 창조주의 영원한 은총을 누리는 모습을 그려보라. 바로 이 실질적이고 복된 혜택이 아직 인류에게 다가올 것이며, 그러한 회복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마련되었다.

회복의 약속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뱀의 죽음의 일이 초래한 결과가 파괴되고, 인간이 창조주를 거역함으로써 상실했던 상태로 회복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실상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회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 곧 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태어나셨다"고 선포했을 때, 이는 온 세상이 죽음에서 구원받고 땅 위에서 생명으로 회복될 기회를 얻게 될 것임을 의미했다. (누가복음 2:1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가르치셨을 때,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왕국의 진정한 궁극적 목적인 인간의

잃어버린 지위 회복을 상기시킨 것이었다. 이 기도를 한 모든 그리스도인은—그 의미를 깨달았든 아니든—지상에 낙원 상태가 회복되기를 기도한 것이다.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회복된 생명의 약속된 축복을 나누어 주는 영광스러운 일에 그분과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10) 성경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고 말할 때, 이는 원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죽음의 형벌이 때가 되면 폐지되어, 온전하게 된 땅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임을 의미한다.— 로마서 6:23; 히브리서 2:9

이 회복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성과 영광 모두에서 지극히 높은

지위에 높이 들려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교회에 참여시켜 지옥 불에서 구원받게 하려 하셨다는 암흑기 이론보다,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이보다 더 나은 영광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이 영광스러운 회복, 즉 원상회복의 사역이 바로 그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19-23에서 이를 암시한다. 기록된 이 말씀을 하기 직전,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다리가 불편했던 한 사람을 고쳐 주었다. 그는 이 사건을 예시로 삼고, 청중들에게 전하려는 중요한 교훈의 근거로 삼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가 사함을 받으라 주께서 상쾌한 때를 주실 것이요 그가 너희에게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하늘이 그를 받아야 하니 이는 하나님이 창세 이래로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만물의 회복의 때가 이를 때까지라.” 이 얼마나 포괄적인 예언인가, 만물의 회복이라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후속

이야기는 그가 지상에 돌아오신 후 따를 것이라고 여겨졌던 전통적인 멸망론과는 얼마나 다른가.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것은 어둠과 고통의 때가 아니라 상쾌한 때입니다. "임재로부터"라는 표현은 그리스어 원문에서 문자 그대로 "그 얼굴로부터 나오다"를 의미합니다. 이는 동양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것으로, 누군가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호의가 없다는 증거이지만,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은 그를 친구로 여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도가 이 예언에서 사용한 이 표현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지니는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법이 어겨졌기에 인간 창조물을 등지셨습니다. 선지자는 "그의 은혜 속에 생명이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고, 햇빛과 비를 잃은 꽃처럼 사람들은 시들고 죽었습니다. 시편 30:5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해, 하나님께서 6천 년 이상 인류에게 등을 돌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복된 때에 관한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한 준비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 수립은 이러한 약속들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시기를 표시한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그때에 하나님이 인류 가족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실 것이며, 그 결과 상쾌한 때가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사도는 또한 세상이 시작된 이래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된 모든 것의 회복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것은 지상에서의 완전한 삶이었으며, 회복될 것도 지상에서의 완전한 삶입니다. 천국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이 어떻게 천국으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은 고통받고 죽어가는 인류 세계를 위한 이 다가올 복의

날들을 예언해 왔습니다! 사막이 꽃피고 무화과나무가 하늘에서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지상의 일들이었으며, 이제 우리는 그들의 메시지가 회복된 낙원에서 누릴 지상의 생명과 행복의 축복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된다.

베드로가 한 절름발이를 고친 일은 단지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시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왕국 시대가 오면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리라",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리라",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리라", "소경의 눈이 열리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5장) 이러한 회복의 축복은 불구자나 장애를 가진 불행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도 미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땅을 채울 때(사 11:9), 영적 맹목 또한 사라질 것이다. 이사야 이사야 11:9; 예레미야 31:34

메시아 왕국은 예언에서 산으로 상징됩니다. 다니엘이 온 땅을 채울 때까지 자라날 것이라고 예언한 바로 이 산 왕국입니다. (단 예 2:34,35,44) 이 같은 산은 선지자 미가서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집의 산이 모든 산 위에 높이 세워지고 모든 언덕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며,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와서 말하기를, '와서 여호와의 산,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리라.' 하리라. 그가 많은 민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의 강한 나라들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칼을 낫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리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각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를 말씀하셨음이니라." 미가 4:1-4

마지막 날들

앞선 구절에서 사용된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은 죄와 죽음이 지상에 군림하는 통치의 종말을 묘사하며, 메시아의 직접 통치 아래 새롭고 더 나은 질서가 세워질 시기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날들에 대한 암흑기적 상상들은 이 구절과 다른 희망을 주는 성경 말씀들과 비교할 때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종말이 모든 희망과 회개의 기회를 끝내는 시점이라는 생각과는 정반대로, 선지자는 전혀 다른 그림을 제시한다. 그는 그때에 하나님이 백성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치시며 그들이 그분의 길로 걸을 것이라고, 그들이 이기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성향을 그치고 평화와 선의를 증진하는 데 시간을 바칠 것이라고 말한다. 나라가 나라를 향해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메시아 왕국의 모든 세부 사항이 성경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수백만 천체의 질서 정연한 움직임을 창조하고 지금도 통제하시는 동일한 신성한

능력과 오류 없는 지혜가, 현재의 인간 죄악과 이기주의의 파멸 직후 온 땅에 걸쳐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에 대한 지식이 시행될 왕국의 방식을 보장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미가의 예언에 담긴 상징들은 물론 예언자 자신이 익숙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한다. 창과 칼은 오늘날 효과적인 전쟁 도구로 유행하지 않는다. 이 예언이 더 현대에 기록되었다면 분명 잠수함, 비행기, 독가스, 핵전쟁을 언급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평화와 만족을 상징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전히 운영될 때 모든 이에게 삶의 필수품과 안락함이 계속 제공될 것이라는 충분한 확신에 기반한다. 모기지 없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편안한 집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상태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개념일 것이다.

우리는 회복의 시대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예언을 인용한다: "이 산[왕국]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위하여 기름진 잔치와 포도주 잔치를 베풀어 주시리니... 잘 정제된 포도주로... 그가 이 산에서 모든 백성 위에 덮인 가리개와 모든 나라 위에 드리운 베일을 멸하실 것이며, 죽음을 삼켜 버리시고,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며, 온 땅에서 그의 백성에게 내리신 책망을 없애실 것이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이사야 25:6-8

이 회복의 복에 관한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언에 묘사된 것보다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만민의 소망이 오실 때”(하가이 2:7) 참으로 잔치가 될 것이다. 이 잔치는 메시아 왕국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유지하는 공급을 상징한다.

그 "옛 뱀"의 눈멀게 하는 영향력을 상징하는 휘장이 그때 제거될 것이다. 계시록 저자가 지적하듯, 사탄이 더 이상 열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결박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Rev elation 20:1-3

그때에 죽음이 승리에 삼켜질 것이다! 세상에 들어와 모든 이의 행복을 파괴한 것은 죽음이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회복될 것이므로, 죽음은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21:4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어려움은 많은 이들이 이 모든 영광스러운 지상의 약속들을 하늘에 적용하려 했기 때문인데, 오직 소수—이 시대에 주님의 진정한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만이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군림한 곳은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더 이상 없을 곳도 바로 이 땅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의 왕국 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선지자가 이 점에 대해 말한 것을 주목하라: "그 날에 이스라엘 집에서 말하되 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주님이시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사 25:9). 이사야 25:9

수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간절히 기다려 왔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바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돌아오는 해돋이를 기다려 왔습니다—아마도 무지하게 기다리며, 그것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지 잘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대속죄자의 눈부신 영향력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온 땅을 채울 때, 세상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며, 진정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의 광대함으로 인해 누구의 믿음도 흔들리지 말라. 지금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전능하신 영원한 우주 창조주가 약속하신 일임을 기억하라. 처음에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다시 창조하실 능력이 넘치신다.

이 회복은 죽어가는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포함한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부활 교리에 담긴 내용이다. 죽음이 없다는 전통적 이론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적 교리( )를 무효화해 버렸다.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불멸의 영혼이라는 전통에 마음이 가려진 혼란스러운 세상이, 단순하지만 영혼을 만족시키는 회복의 소망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했는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로부터의 깨어남과 지상에서의 생명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며, 곧 밝아올 새 날의 새벽에 모든 이가 깨어나 상쾌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시대의 신성한 시계는 이미 이른 아침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둠이 아직 짙지만, 날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 중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이 생명 주는 회복의 축복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이다. 이를 믿는 데 과도한 믿음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수립 직전에 있을 현세적 상황들을 예언하는 데 너무나 정확했기에, 우리가 지금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주셨던 동일한 신성한 능력과 지혜가 앞으로 다가올 더욱 놀라운 일들을 예언하는 데도 반드시 인도하셨을 것임을 믿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펼쳐진 고무적인 전망을 기뻐하며, 다가올 기쁨의 비전이 현재의 시련을 인내로 견디게 하소서. 죄와 죽음의 통치는 세상

전체에게 길고 지친 밤이었다. 그러나 각 개인에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며, 그 흐름 속에서 각자는 매우 소중한 교훈의 기초를 쌓아왔다. 이제 우리가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창조주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그분의 법칙을 더욱 깊이 감사하게 하기 위해 악의 통치를 허락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고, 새 날이 도래하기를 계속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